

제주방언 높임말 첨사의 담화 기능*

— ‘마쌌, 양, 예’를 중심으로 —

문순덕
(제주대학교)

Moon, Soon Deok. 2005. The Discourse Function of Honorific Particles in Jeju Dialect -with special reference to *massum*, *yang* and *ye*-.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20-3. 71-87. The honorific expressions in Jeju Dialect are in general made in two ways: grammatical morphemes such as '-u-/-su-' and '-psə', and particles such as '*massum*, *yang* and *ye*.' Of the two, this paper concerns with the discourse function of the latter. According to this preliminary research, it seems that the frequency of the three particles can be classified in terms of sex and age. According to the observations regarding the difference in frequency between males and females, it follows that *massum* is a neutral particle in the sense that it is widely used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However, it is shown that the frequency of *yang* is higher with males than with females, while *ye* is exclusively used by females. Concerning the frequency of the three particles in accordance with the age difference, it is pointed out that *massum* is likely to be more frequently used by the older speakers and that *yang* is used when the hearers are older than the speakers, whereas *ye* is likely to be more frequently used by the younger gene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particles, *massum*, *yang*, *ye*, discourse, honorifics

1. 머리말

대우법(존대법, 경어법, 존비법, 겸양법)이란 화자나 청자의 사회적 요인(나이, 성별, 직업, 종교, 친소관계, 대화 장면 등)에 어울리게 달라지는 말씨를 가리킨다. 대우법에는 주체대우, 청자대우, 객체대우법이 있으며, 어휘적 차원의 대우법과 문법적 차원의 대우법이 있다. 청자대우를 화계(話階)로 나타내면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격식체에는 아주높임(합쇼체), 예사높임(하오체), 예사낮춤(하계체), 아주낮춤(해라체)이 있으며, 비격식체에는 두루높임(해요체), 두루낮춤(해체, 반말체)이 있다. 두루높임 형태는 주로 반말 형태에 '요'가 첨가되어서(서정수 1995 : 921) 형성되는데 이는 반말 형태의

* 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고마움을 전한다.

존대형이다. 제주방언 청자대우의 표현 방식에는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로 표시하는 것과 첨사로 표시하는 것이 있는데 첨사에 의한 청자대우를 높임말 첨사라 하겠다.

제주방언 청자높임법에는 문법형태소 ‘-우-/-수-’와 ‘-ㅂ서’가 있으며, 첨사 ‘마씀, 양, 예’가 있는데 주로 문장종결형에 첨가되어서 청자를 높여주는 첨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첨사들은 표준어 격식체인 ‘-습니다’나 비격식체인 ‘요/말입니다’에 해당하지만 정확한 대응은 안 된다. 제주방언 높임말 첨사에는 ‘마씀, 양, 예’가 있고 반말체 첨사(문순덕, 2003)에는 ‘게, 이, 기’가 있으며 한 문장 내에서 종결어미 자리에 놓이기 때문에 종결어미의 통사기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나 화자가 담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기 때문에 첨사로 분류했다.

제주방언 높임말 첨사 ‘마씀’이 논의된 것은 현평효(1974/1985)와 성낙수(1984/1992), 박용후(1989) 정도이다. 현평효(1985 : 68)에서는 정동사의 어말어미에 ‘마씀’이 첨부되어서 대자존대(對者尊待)의 첨사 기능이 있으며 표준어 ‘말입니다’의 의미에 대응된다고 보았다. 성낙수(1985 : 53/75)에서는 ‘마씀’이 풀이씨의 마침법에 통합되는 종결어미로 다루고 표준어 ‘말입니다’의 기능과 의미를 지닌 정도로 보았다. 박용후(1989 : 66-68)에서는 높임말 첨사 ‘마씀, 예’의 분포를 제시하였다. 제주방언은 거의 반말체에 높임말 첨사 ‘마씀, 양, 예’가 통합되어서 두루높임의 기능을 하는데 ‘마씀, 양, 예’가 청자높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변별력을 지니면서 자유롭게 발화되므로, 세 첨사가 쓰인다는 것은 담화상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제주방언의 높임말 첨사

현평효(1985 : 69)에서는 청자대우를 화계(話階)로 나타내면 표준어가 4체계임에 비해 제주방언을 3체계로 보았다. 따라서 청자대우법의 등급을 ‘허라체(하대, 해라체), 허여체(평대, 하게체), 홉서체’(존대, 합쇼체)로 3등분하였고 ‘하오체’는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종결어미에 의한 높임이 아니라 ‘마씀, 양, 예’가 첨가된 문장은 ‘홉서체’와 해오체의 등급에 해당한다. 표준어와 달리 제주방언은 종결어미로 ‘해라체, 하게체’의 화계를 나타내고, 선어말어미로 합쇼체를 나타낸다. 표준어 ‘요’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면서(이정민·박성현, 1991 ; 서정수, 1994 ; 성기철, 1985) 제주방언 높임말의 담화 기능을 논의하고자 한다.

‘마씀, 양, 예’는 ① 종결어미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나+마씀/양/예). ② 연결어미 다음에 놓인다(보멍+마씀/양/예). ③ 종결어미 다음에

놓인다(놓주+마씀/양/예). 따라서 세 첨사는 보통 종결어미 다음에 놓여서 담화 기능을 드러내는데 연결어미나 명사, 부사에 직접 통합해서 문장이 완결되므로 종결어미의 문법기능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주 기능은 종결어미 다음에 통합되므로 첨사로 보았다.

2.1 ‘마씀’의 담화 기능

제주방언 ‘마씀’은 표준어에서 비격식체 ‘-요’나 ‘말입니다’, 격식체 ‘-습니다’에 해당하고, ‘마슴/마시/마심/마씨/마썸’ 등의 이형태¹가 있으며 제주 전 지역에서 쓰인다.

다음은 여러 응답형에서 ‘마씀’의 기능을 살펴보겠다.

- (1) 가. 방 청소하라.(방 청소하라.)
 - 나1. 밥 먹엉마씀.(밥 먹고요.)
 - 나2. 밥 먹엉.(밥 먹고.)

(1 나1)은 연결어미 ‘-엉(-고)’과 첨사 ‘마씀’이 통합한 문장이다. (1 나2)처럼 ‘밥 먹엉’으로도 문장이 완결되는데 ‘마씀’이 첨가되어서 청자를 높여준다. 그런데 ‘먹엉’이라고 하면 미완결문의 성격이 강하고, ‘먹엉마씀’이라고 하면 완결문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봐서 ‘마씀’은 문장종결의 자리에 놓임을 알 수 있다. 완결문이건 미완결문이건 간에 ‘마씀’이 첨가되면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문장이 종결된다. (1 나1)에서 ‘마씀’을 강하게 발음하면 단순히 응답자의 의견 제시일 수도 있지만, 응답자가 속으로는 청소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발화일 수도 있다. 또한 화자에 대한 반항의 의사를 표현할 때는 ‘마씀’을 강하고 짧게 발음하기도 한다.

- (2) 가. 아이덜이 운동장에서 놀암선계.(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더라.)
 - 나1. 아이덜이 이제도 이신가?(아이들이 이제도 있나?)
 - 나2. 아이덜이 이제도 이신가마씀?(아이들이 이제도 있나요?)
 - 나3. 아이덜이 이제도 잇수광?(아이들이 이제도 있습니까?)

¹ 제주방언에는 ‘마씀’의 이형태가 다양하게 쓰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이형태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기본형으로 설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마씀’ 형을 선택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여기에 쓰인 제주방언 문장은 노년층에서 자유롭게 구사되지만 젊은층으로 내려올수록 덜 사용되기도 한다.

(2 가)에서 화자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사실을 청자에게 알려주거나, 확인해주고 있다. (2 나2)는 반말체 종결형 ‘이신가?’에 ‘마씀’이 쓰여서 높임말이 되었으며, 종결어미 다음에 놓였다. (2 나3)은 청자높임 선어말어미 ‘-수-’에 의한 높임 문장이다. 청자를 대우하는 방법에 (2 나3)이 있는데도 (2 나2)처럼 ‘마씀’을 선택한 것은 화자와 청자 간의 친밀감 정도로 볼 수 있다. 화자와 청자 사이에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친밀한 관계일 때 자연스러운 발화이다. 즉 ‘이신가마씀?’은 청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화자가 원하는 답을 바랄 수도 있다. 그런데 ‘잇수광?’을 발화하면 단순히 청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정도로 들린다.

‘마씀의 기능을 좀더 알아보겠다.

(3) 가. 베갯디 이신 거 누계?(밖에 있는 거 누구?)

나1. 나.

나2. 나마씀.(나예요.)

나3. 나우다.(나예요.)

(3 가)에서 화자는 청자와 비슷하거나 청자보다 나이가 많아서 반말로 문장이 종결되었으며, 그에 대한 응답으로 (3 나1-나3)이 가능하다. (3 나1)은 대명사 단독으로 문장이 종결되며 반말체이다. (3 나2)에는 첨사 ‘마씀’이 첨가되고, (3 나3)에는 청자높임 선어말어미 ‘-우-’가 쓰였다. (3 나1)처럼 ‘나’라고 했을 때는 응답자 역시 화자와 비슷한 연배이다. 그런데 (3 나1)에 ‘마씀’이 첨가된 (3 나2)는 화자보다 응답자가 손아래임을 뜻한다. 단순히 밖에 있는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인식시키고 있다. 여기서 수평어조이면 단순히 밖에 있는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지만, ‘마씀’에 초점이 놓이면 강조의 의미가 있다. 즉 ‘밖에 있는 것은 나’라는 당연한 사실을 왜 묻느냐는 의미일 수도 있다. (3 나1)처럼 ‘나’를 기본형으로 본다면 ‘마씀’이 선택될 때는 화자보다 청자(응답자)가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 등 여러 면에서 손아래임을 뜻한다. 그래서 ‘마씀’은 ‘나이다’로 끝날 수 있는 문장에 높임의 의미가 첨가될 때 쓰인다.

(2 나3), (3 나3)처럼 청자높임 선어말어미에 의한 청자높임법도 활발하지만 (3 나2)처럼 청자높임 첨사를 선택할 때는 발화 상황에 맞게 화자가 청자를 대우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즉 화자가 ‘마씀’을 선택할 때는 다분히 의도적인 감정이 드러나는데 청자를 높이기는 싫지만 존대해야 할 때, 무심코 반말을 내뱉다가 높여줘야 할 상황임을 인식할 때에도 가능하다.

‘마씀’이 항상 모든 문장종결법에서 발화되는 것은 아니다.

- (4) 가. 이디서 더 놓주마씀(여기서 더 노시지요.)
 나1. 흔저 집에 갑서.(어서 빨리 집에 가십시오.)
 나2. *흔저 집에 갑서마씀.
 나3. 흔저 집에 갑서-마씀.

(4 가)는 아주높임 청유법어미 ‘-디주’에 ‘마씀’이 첨가되어서 화자가 더 높고 싶은 마음을 완곡하게 전달하면서 청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4 나1)은 어미 ‘-디서’에 의한 높임법인데 여기에 첨사가 덧붙은 (4 나2)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즉 (4 나2)에서 아주높임 명령법어미 ‘-디서’와 ‘마씀’은 통합할 수 없어서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4 가)처럼 청유법일 때는 청자에 대한 극진한 예우 차원에서 ‘마씀’의 선택이 자연스럽지만, (4 나2)처럼 명령법일 때는 청자높임의 검침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입장을 청자에게 권유, 요청할 때는 높여주고 싶은 의도가 강하지만, 명령을 할 때는 보편적인 언어예절만 지키려는 것 같다. (4 나3)은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발화는 아니고 화자의 감정이 길게 개입될 때만 쓰인다. 즉 청자의 언행이 아주 못마땅할 때 그것을 나무라는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발화된다. ‘마씀’을 선택해서 표면적으로는 상대를 높여주지만 실제로는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이기도 하다.

- (5) 가. 는 학교 안 갈 거?(년 학교 안 갈 거니?)
 나1. 갈 거.(갈 거야.)
 나2. 갈 거마씀.(갈 겁니다.)
 나3. 갈 거우다.(갈 겁니다.)
 나4. *갈 거우다마씀.(갈 겁니다요.)

(5 나2)는 (5 나1)의 반말체 문장에 ‘마씀’이 첨가되어서 청자를 높여준다. (5 나2)는 단순히 사실여부를 묻는 진술일 수도 있는데, 응답자는 그 사실을 시인하면서 확인해 준다. 화자가 보기에 청자는 학교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도 머뭇거리면서 가지 않으니까, 학교에 안 가도 되는지를 반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청자는 당연히 학교에 가야 할 상황임을 감지하고 가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5 나3)은 청자높임 선어말어미 ‘-우-’가 쓰여도 의미는 같다. 여기서는 높임선어말어미와 첨사가 자유롭게 발화되고 있다. 그런데 (5 나4)는 이미 청자높임 문장에(5 나3) 높임말 첨사 ‘마씀’이 첨가되어서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마씀’이 첨사이기는 하지만 모든 문장이 종결된 후에 조건 없이 덧붙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 제약이 따름을 알 수 있다. 즉 평서법일 때 청자높임 선어말어미 ‘-우-/수-’와 ‘마씀’이 통합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마씀’의 쓰임을 좀더 알아보겠다.

(6) 가. 가윈 어떻 경 잘 알압신고?(그 아인 어떻게 그리 잘 아는가?)

- 나1. 그런 일을 해낫텐.(그런 일을 했었다고.)
- 나2. 그런 일을 해낫텐마씀.(그런 일을 했었다고요.)
- 나3. 그런 일을 해낫수텐마씀.(그런 일을 했었습니다고요.)
- 나4. 그런 일을 해낫수게.(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6 나2)는 인용어미 다음에도 ‘마씀’이 첨가되어서 청자를 높여준다. 즉 청자는 화자의 물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 ‘그 아이가 잘 아는’ 사실을 화자에게 확인해 주고, 단정하고 있다. ‘마씀’을 제거한 (6 나1)은 화자의 물음에 대한 청자의 단순 응답으로 본다. ‘그 아이가 과거에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차원이다. (6 나2)는 ‘반말체+마씀’ 형인데 (6 나3)은 청자 높임 선어말어미 ‘-수-’와 ‘마씀’의 동시 발화가 가능하며, 사실을 전달하는 차원이다. 그런데 ‘마씀’에 초점이 놓이고, 길게 발음되면 응답자의 의사가 강하게 표현되는 것 같다. 즉 화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빈정거림 정도로 들린다. (5 나4)와 비교해 보면 청자높임 선어말어미 ‘-우-/-수-’와 ‘마씀’이 무조건 통합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문장종결법에 따라서 다르게 실현됨을 알 수 있다. (6 나4)는 단순히 그런 사실을 확인해 주는 발화이다.

(1)-(6)에서 보듯이 제주방언 높임말은 주로 반말에 ‘마씀’이 첨가되어서 청자를 높여주며, 간혹 ‘마씀’에 초점이 놓일 때에는 화자의 감정이 개입되기도 한다. 성기철(1991 : 17)에서는 반말로 끝나는 문장에 ‘요’가 첨가되어서 청자를 대우하는 형태를 반말높임이라 하였다. 반말높임이란 아주높임과 예사높임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두루높임과 같다.

첨사 ‘마씀’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마씀’이 반말체 문장종결법에 첨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첫째, ‘마씀’이 반말체에 첨가될 때는 어떤 문장종결법에서도 성립하지만 아주높임 등급에 첨가될 때는 청유법어미나 인용어미에만 첨가될 수 있다. 이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심리 상태가 반영되기 때문이라 본다.

둘째, 청자높임 선어말어미 ‘-우-/-수-’가 있는데도 ‘마씀’이 쓰이는 것은 반말체에 이 첨사만 덧붙이면 두루높임 등급이 된다는 편리성과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라 본다. 즉 청자높임 선어말어미와 ‘마씀’이 자유롭게 쓰이는 상황에서 화자가 ‘마씀’을 선택한 이유는 발화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상대방을 대우해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어말어미에 의한 높임법보다는 ‘마씀’에 의한 높임법이 화자와 청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친밀성도 드러난다. 제주방언 청자높임법에서 비격식체인 두루

높임법은 주로 첨사 ‘마씀’에 의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셋째, ‘마씀’은 청자높임 선어말어미 ‘-우-/수-’나 높임 명령범어미 ‘-너서’에 첨가될 수 없다(*갓수다마씀, *갑서마씀). 즉 한 문장 내에서 청자높임의 문법기능이 겹쳐 쓰일 수 없다는 말이다. 이는 한번 높인 발화에서 이중의 높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자높임 선어말어미 ‘-우-/수-’와 첨사 ‘마씀’은 의미상 상보적분포 관계여서 서술어자리에서 동시에 발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상복(1984 : 25)에서도 “*어디 가시요?”를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봤는데 ‘-요’가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와 통합할 수 없는 것은 제주방언에서 청자높임 선어말어미와 ‘마씀’이 통합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고 본다.

넷째, 표준어에서는 주체높임 선어말어미와 청자높임 종결어미가 동시에 발화되지만 제주방언에서는 이 형태가 실현되지 않는다. 즉 ‘가시었습니다’는 가능하나 ‘*갓수다마씀’은 불가능하다.

2.2. ‘양/예’의 담화 기능

제주방언 ‘양/예’는 표준어 ‘요’에 해당하며, 첨사 ‘마씀’과 마찬가지로 문장 종결에 위치하며 청자를 높여준다. 여기서는 첨사 ‘양/예’가 실현되는 담화 기능을 알아보겠다. 한 길(1986 : 556)에서는 표준어 ‘-요’가 반말에 통합해서 해요체가 된다고 하며, 이상복(1984 : 27)에서는 ‘반말+요’의 통합형을 두루높임의 기능도 있지만 청자를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을 때 쓰이기도 한다고 보았다.

다음은 문장종결법에 따른 응답형에서 ‘양’의 쓰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7) 가. 가원 어디 이시냐?(그 아인 어디 있느냐?)

- 나1. 집에 잇수다.(집에 있습니다.)
- 나2. 집에 잇수다양.(집에 있습니다요.)
- 나3. 집에 이서.(집에 있어.)
- 나4. 집에 이서양.(집에 있어요.)

(7 나2)는 ‘잇수다’로도 청자높임에 손색이 없는데 ‘양’이 첨가되어서 청자높임의 의미가 가중되었다. 그런데 ‘마씀’이 청자높임 선어말어미(5 나4)나 높임 명령범어미(4 나2)와 통합할 수 없는데 비해 ‘양’은 이 형태들과 통합하는데 제약이 없다. 이는 ‘마씀’과 ‘양’이 청자높임 자질면에서는 같지만 발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인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본다. (7 나1)처럼 ‘양’을 제거해도 문장은 완결되며 동작주의 행위 완료를 알려준다. 이에 비해서

‘양’이 첨가되면(7 나2) 동작주가 집에 머문 상태를 강조하고 단정하는 화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잇수다’로도 이미 청자를 높여주는데 ‘양’이 첨가된 것은 화자의 의도적인 선택이며 청자와 주변 담화자 사이에 친밀감이 강하게 느껴진다. 즉 청자높임 선어말어미 ‘-우-/-수-’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높임 첨사를 이중으로 선택한 것은 화자중심에서 청자를 높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것 같다. 또한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7 나4)는 반말체 종결형 ‘이서’에 ‘양’이 첨가되어서 자연스럽게 높임문장이 되었다. 여기서도 ‘양’은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거나 다른 담화자의 동의를 구하는 의미로 쓰인다.

다음은 첨사 ‘양’이 동작주의 인칭에 따라서 선택됨을 보여준다.

(8) 가. 삼촌, 어디 감수팡?(삼촌, 어디 가십니까?)

- 나1. 난 서울에 감저.(난 서울에 간다.)
- 나2. *난 서울에 감저양>(*난 서울에 간다요.)
- 나3. 난 서울에 감수다양.(난 서울에 갑니다요.)

(9) 자원 혼자 감저양.(저 아이는 혼자 가네요.)

(8가)에서 ‘삼촌’이라는 호칭으로 봐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미 연령차가 드러난다. (8 나2)에서 주어가 1인칭일 때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저’와 ‘양’이 통합할 수 없는 것으로 봐서 ‘양’은 청자높임의 기능이 확연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8 나3)에서 ‘감수다양’을 수평어조로 발화하면 단순히 ‘내가 가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양’에 초점이 놓이면 ‘내가 가는 사실’을 강조하고 확인시키려는 의미가 강하게 느껴진다. 즉 청자높임 선어말어미 ‘-수-’가 있어서 이미 청자를 높여주었는데 여기에 ‘양’이 첨가된 것은 화자의 의도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반면 (9)는 3인칭 주어가 화자일 때 ‘-저’와 ‘양’이 통합하고 있다. 화자는 그 아이가 혼자 가는 사실을 안다는 단순 발화이기도 하고, 다른 담화자에게 확인해주고, 동의를 요구하려는 의미도 있다. 화자의 생각에 동작주는 다른 사람과 같이 갈 줄 알았는데 혼자만 간다는 사실을 청자에게 반문하고 확인하는 뜻도 있다.

다음은 명령법의 응답형에서 ‘양’의 쓰임을 알아보고자 한다.

(10) 가. 시장에 강 빨리 오라.(시장에 가서 빨리 오라.)

- 나1. 보명양.(보면서요.)
- 나2. 보명.(보면서.)

(10 나1)에서 첨사 ‘양’은 연결어미와 통합하고 있다. (10 나2)는 미완결문이지만 (10 나1)이 완결문의 성격이 강한 것은 ‘양’이 쓰였기 때문이다. (10 나1)에서 화자는 시장에 가 보아서 행동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즉 화자는 청자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가 ‘양’을 선택해서 청자를 높여주기도 하지만 단정적인 감정 표현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완곡하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다음은 ‘양’의 발화 환경에 제약이 있음도 보여준다.

(11) 가. 뭐 먹을 거 이서?(뭐 먹을 거 있어?)

나1. 이거 먹읍서.(이거 먹으십시오.)

나2. 이거 먹읍서양.(이거 먹으십시오양.)

나3. *이거 먹으랴양.(*이거 먹어랴요.)

(11 나1)처럼 높임명령법으로 완결되는데 (11 나2)처럼 ‘양’이 쓰여서 명령 정도가 강하게 전달된다. ‘먹읍서양’에는 보통 명령의 의미가 있는데, ‘양’을 강하게 발음하면 반어법이 된다. 어린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어머니가 꾸중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네가 정말 먹지 않을래? 꼭 먹어!’를 전제한다. 이때 아이를 높일 수는 없으니까 높임문의 형태를 빌면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할 수 있는 첨사 ‘양’까지 덧붙인다. 또한 단순히 화자가 청자를 높여줄 때 이 문장은 자연스럽게 발화된다. (4 나2)에서 보면 ‘-너서’와 ‘마씀’이 동시에 발화될 수 없지만 (11 나2)에서는 ‘-너서’와 ‘양’이 동시에 발화되고 있다. 아주높임 형태인 ‘-수-’와 ‘-너서’만 쓰여도 높임말로 손색이 없는데 화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양’이 첨가되었다. ‘양’을 제거한 문장보다 ‘양’이 첨가된 문장이 청자에 대한 화자의 부드러움 정도가 잘 드러나므로 ‘양’은 화자가 담화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다. (11 나3)은 반말체 명령법에 첨사 ‘양’이 첨가되어서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첨사 ‘양’은 높임명령어미와 통합하지만 반말체 명령어미와 통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은 ‘양’이 청자높임의 담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양’에 반어법의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발화 상황을 좀더 알아보겠다.

(12) 가. 야원 공부 안 후곡, 이제까지 뭐 험시니?

(이 아인 공부 안 하고 이제까지 뭐 하고 있니?)

나. 놀지 말양 혼자 공부협서양.(놀지 말고 빨리 공부하십시오양.)

(12 나)는 화자가 어른이고 청자가 자식일 때 주로 발화된다. 여기서 ‘-너서’나 ‘양’은 높임말로 쓰인 것이 아니고 반어법으로 쓰였으며 빈정거림, 꾸

지람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양’에 초점이 놓여서 화자가 의도적인 감정을 전달하고자 할 때만 쓰이는 발화이다. (4 나3)에서도 높임명령법 어미 ‘-니서’에 ‘마씀’이 첨가될 때는 단순히 청자높임이 아니라 언제나 반어법으로 쓰임을 보았다. 그런데 ‘-니서+마씀’은 청자가 화자보다 손아래일 때만 빈정거림이나 반어법으로 쓰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높임말 첨사인 ‘예’의 담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양’과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3) 가. 가원 집에 엇인가?(그 아인 집에 없는가?)
 - 나1. 가원 집에 이서.
 - 나2. 가원 집에 이서예.(그 아인 집에 있어요.)
 - 나3. 가원 집에 잇수다.
 - 나4. 가원 집에 잇수다예.(그 아인 집에 있습니다요.)

(13 나1)은 반말체 완결문인데 ‘예’가 통합한 (13 나2)는 두루높임 등급으로 변했다. ‘예’가 쓰여서 응답자의 사실 확인의 의미 외에 강조의 의미도 들어있다. (13 나3)에서 ‘잇수다’로도 이미 청자를 높여주는데 (13 나4)처럼 ‘예’가 다시 덧붙여서 아주높임 형태가 되어서 화자와 청자간에 나이 말고도 친소 정도가 반영되었다. ‘예’가 통합되어서 동작주가 집에 있는 사실을 단순히 전달할 때도 쓰이지만,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왜 묻지’ 하면서 의심할 때도 가능한 발화이다.

다음에는 ‘예/양’의 분포 환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 (14) 가. 이거예/양 족아도 집에 앓앙 갑서.
 - (이거예 작아도 집에 가져 가십시오.)
 - 나1. *이거예/*양 족아도 집에 앓앙 가라.
 - 나2. 이거 족아도 집에 앓앙 갑서예/양.

(14)에서 첨사 ‘예’와 ‘양’은 실현되는 환경이 같고 청자높임 일치 조건도 같다. (14 가)에서 ‘예’를 제거한 ‘이거’로도 문장은 성립하는데 ‘예’를 첨가하면 화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다. ‘이거예’에 초점이 있어서 청자가 꼭 갖고 가길 바라는 심정이 잘 드러난다. 청자가 가져 갈 것은 ‘이것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확인해준다. 그런데 (14 나1)은 반말체 종결형이어서 높임말 첨사와 호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첨사 ‘예’와 ‘양’은 청자를 높이는 기능이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즉 문두에 ‘예’가 쓰이면 높임의 종결어미가 쓰여야 한다. (14 나2)처럼 ‘예’가 종결어미와 통합하는 것이 먼저이고,

(14 가)처럼 문중에도 자유롭게 쓰일 수 있으며,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를 높여 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강할 때 여러 문장성분에 덧붙일 수 있다.

(7)–(14)에서 ‘양/예’는 ‘마씀’과 마찬가지로 담화 기능이 강하지만 실현되는 통사 환경에 제약이 있음도 살펴보았다.

첫째, ‘양/예’는 아주높임이나 두루낮춤에 두루 첨가되어서 청자를 높여주는 데 비해, ‘마씀’은 주로 반말체 종결형에 첨가되어서 청자를 높여준다. 이 첨사들은 청자높임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지만 실현되는 통사 환경이 조금 다른 것은 화자가 청자에 대한 주·객관적 감정노출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방언에서 첨사 ‘양/예’와 ‘마씀’이 담화 상황에 따라서 선택되어 쓰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양/예’는 청자높임 선어말어미와 통합할 수 있는데 ‘마씀’은 불가능하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마씀’을 선택할 때는 좀더 공식적인 장면이며, ‘양, 예’는 덜 공식적이고 자유로운 발화 상황에서 실현된다. ‘마씀’과 ‘양’은 높임말 첨사이지만 화자의 감정 개입 정도에 따라서 선택되어 쓰이기도 한다.

셋째, 제주방언 화자들은 높임말 첨사인 ‘마씀, 양/예’를 발화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선어말어미에 의한 청자높임은 대우 정도가 단조로울 텐데 첨사를 활용할 수 있어서 청자높임법이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높임선어말어미가 발화될 때보다 첨사로 발화할 때가 친밀성이 높게 느껴진다.

2.3 각 첨사의 기능 비교

표준어 ‘-요’의 쓰임(이정민·박성현, 1991 : 362)를 참고해서 제주방언 높임말 첨사 ‘마씀, 양, 예’의 기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의문법에서 첨사의 기능을 알아보자.

- (15) 가. 우리가 봐난 사름 아니라양/예?(우리가 보았던 사람 아니에요?)
나. ?우리가 봐난 사름 아니라마씀?(우리가 보았던 사람 아니에요?)

(15가)는 확인의문법인데 ‘반말+양/예’가 통합되어서 청자를 높여준다. (15나)에서 ‘마씀’이 쓰이면 확인의문법의 기능보다는 판정의문법의 기능이 강하게 느껴진다. 화자가 어떤 사실을 청자에게 확인하고자 할 때는 ‘마씀’보다 ‘양, 예’의 쓰임이 더욱 자연스럽다. 따라서 제주방언의 세 첨사는 화자의 감정 전달 정도(확인, 동의, 요청 등)에 따라서 선택된다고 본다.

다음은 응답형에 쓰인 첨사의 기능을 알아보겠다.

(16) 가. 가윈 무사 욱들어서냐?(그 아인 왜 꾸중 들었느냐?)

나1. 할망안티양/예 막 대들엇수게.

(할머니한테예 매우 대들었습니다.)

나2. *할망안티마썸 막 대들엇수게.

(16)에서 ‘양, 예, 마썸’은 칭자를 높여주는 기능은 같은데 실현되는 통사 환경이 다르다. (16 나1)에서 ‘양, 예’는 여격조사와 통합하는데 (16 나2)에서 ‘마썸’은 여격조사와 통합하지 못한다. (16 나1)에서 첨사 ‘양, 예’를 제거해도 문장이 성립하는데(‘할망안티’) ‘양/예’가 첨가되면 칭자를 높여주면서 강조된다. 이는 화자가 보기에 그 아이가 유독 할머니한테 심하다고 여겨서 ‘양/예’를 선택해서 자신의 입장을 확인시키고 있다. 첨사 ‘예’는 잉여적인 것 같지만 칭자를 공손하게 대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16)에서 보듯이 ‘양, 예’는 문중에서 자유롭게 쓰이나 (16 나2)처럼 ‘마썸’은 그렇지 못하다. 한 문장 내에서 자유롭게 발화되는 ‘양, 예’는 표준어 ‘-요’의 기능과 같으며, ‘마썸’은 언제나 문말에 놓여야 한다는 통사적 제약이 있다.

다음은 발화 상황에 따라서 세 첨사가 선택적으로 쓰임을 보여준다.

(17) 가. 이 일은 어명이 해신가?(이 일은 어머니가 했는가?)

나1. 아멩해도양/예 어명이양/예 최고우다양/예.

(아무래도예 어머니가예 최고입니다예.)

나2. 아멩해도 어명이 최고우다양/예.

나3. 아멩해도양/예 어명이 최고우다.

나4. 아멩해도 어명이양/예 최고우다.

나5. *아멩해도양/예 어명이 최고주.

(18) 가. 이 일은 어명이 해신가?(이 일은 어머니가 했는가?)

나1. *아멩해도마썸 어명이마썸 최고우다마썸.

나2. *아멩해도 어명이 최고우다마썸.

나3. *아멩해도마썸 어명이 최고우다.

나4. *아멩해도 어명이마썸 최고우다.

나5. 아멩해도 어명이 최고마썸.

(17)에서 첨사 ‘양, 예’가 문중이나 문말에 쓰인 것은 화자의 선택 사항이다. 화자는 ‘양/예’를 사용해서 어머니가 가장 좋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확인해 준다. (17 가)는 화자의 혼잣말이거나 단순한 물음이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세 첨사의 쓰임을 알아보았다. (17 나1)에서 ‘양, 예’는 한 문장 내에서 여러 문장성분에 덧붙는데 (18)처럼 ‘마썸’은 여러 문장성분과 통합하는데

자유롭지 못하다. (18 나5)처럼 ‘마씀’은 반말체 종결형에만 덧붙는다. 또한 (17 나1)에서 보듯이 청자높임 선어말어미 ‘-우-’와 ‘양/예’가 공기하는데 (18 나2)처럼 ‘마씀’과 공기할 수 없는 통사 특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다만 ‘마씀’은 한 문장 내에서 항상 문장 끝에 놓인다는 점이다.

(17)에서 ‘양, 예’는 문중이나 문말에 두루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표준어 ‘-요’의 분포와 같다.(이정민·박성현, 1991 : 362-363) 그런데 (18 나5)에서 보듯이 ‘마씀’은 언제나 문말에만 쓰인다. 이것은 ‘마씀, 양, 예’에 높임말 첨사의 기능이 있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제주방언에서 세 형태가 변별력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양, 예’는 문말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화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문중에도 쓰여서 청자에 대한 높임의 강도를 더해 주는 것 같다.

다음은 첨사와 통합하는 선행 조건을 알아보겠다.

(19) 가. 이거 누게가 가져 와서?(이거 누가 가져 왔니?)

나1. 사위가양/예/마씀.(사위가요.)

나2. 사위양/예/마씀.(사위예요.)

나3. [?]사위우다.(사웁니다.)

(19 가)에서 ‘누게’에 초점이 있어서 응답형은 (19 나1-나3)이 된다. 이때 높임말 첨사가 명사에 바로 통합하기도 하고 격조사에 통합하기도 한다. 그런데 명사와 높임선어말어미 ‘-우-’가 결합할 때는 (19 나3)에서 보듯이 말하거나 듣기에 조금 어색하다. (19)를 보면 청자를 높여줄 때 선어말어미보다 첨사의 선택이 의사 표현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19 나1)은 격조사 ‘-가’와 첨사 ‘양/예/마씀’이 통합해서 문장이 완결되었다. 여기서 첨사를 제거해도 문장은 성립한다(‘사위가’). 그러나 ‘사위가’로 끝날 때는 미완결문이지만 첨사가 첨가되었기 때문에 완결문의 기능이 강하게 여겨진다. (19 나2)는 명사와 첨사 ‘양/예/마씀’이 바로 통합되었는데 ‘사위’ 단독으로도 문장은 종결된다. 이 첨사들은 한 문장이 완결된 다음에 첨가됨을 보여준다.

(19)에서 첨사 ‘양, 예’가 발화될 때는 ‘사위’라는 사실을 부드럽게 전달해 주는데, ‘마씀’이 발화되면 단순한 사실 전달이 기본이지만 응답자의 단정적인 어조가 나타난다. 따라서 세 첨사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청자를 대우해 주는 첨사로 발화됨을 알 수 있다. (19)에서 보듯이 제주방언 ‘양/예/마씀’은 표준어 ‘요’의 통사기능과 같으며, 주로 반말체 종결형에 첨가되어서 청자를 높여주면서 문장을 완결시키고 있다.

다음은 ‘마씀’만 실현되는 환경을 보여준다.

(20) 가. 이거 혼자 치우라.(이거 어서 빨리 치워라.)

나1. 무사마씀?(왜요?)

나2. *무사양/예?

나3. 무사?(왜?)

(20 나1)에서 ‘무사’는 부사이며 ‘마씀’이 첨가되었는데 첨사가 제거되어도 (20 나3)처럼 문장이 완결된다. ‘무사’는 ‘마씀’과만 통합하며, (20 나2)처럼 ‘양/예’와 통합할 수 없는 것으로 봐서 높임말 첨사들은 변별력을 유지하면서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화자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거나, 뜻밖의 요청에 대해서 반문할 때는 ‘마씀’만 발화된다.

다음은 첨사를 분리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21) 가. 어디 감서?(어디 가니?)

나1. 집에 감서양/예/마씀.(집에 갑니다.)

나2. 집에 감서 양/예/마씀.

(21 나1)에서 첨사는 의존형태소여서 붙여 써야 하는데 화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21 나2)처럼 ‘감서’와 ‘양/예/마씀’의 분리 발화도 가능하게 여겨진다. ‘양/예/마씀’에는 청자를 높여주는 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서술어+양/예/마씀’이 한 단위로 발화되는데 청자에 대한 반감이나 화자의 의사를 강하게 전달하고 싶을 때는 (21 나2)처럼 첨사가 한 어절로 발화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 보듯이 제주방언의 두루높임 통사구조는 ‘반말체+양/예/마씀’ ‘아주높임+양/예’이며, 의미상 청자를 높여주고 있다. 첨사 ‘양/예/마씀’은 명사, 부사, 조사, 연결어미, 어말어미와 통합해서 화자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고 있다. 제주방언을 보면 높임선어말어미도 있지만 ‘양/예/마씀’에 의한 청자높임법의 사용 빈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제주방언에 청자높임 선어말어미가 있지만 높임 첨사가 쓰이는 것은 첨사의 담화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첫째, ‘마씀/양’은 제주방언에서만 쓰이고 ‘예’는 다른 방언²에도 나타난다. 화자가 청자높임법으로 ‘마씀’이나 ‘양’을 선택한 이유는 발화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상대방을 대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 본다. 선어말어미에 의한 청자높임법보다는 첨사에 의한 청자높임법이 화자와 청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첨사 ‘마씀’은 주로 반말체 종결형에 첨가되

²경상방언 “있지예?, 가지예/”에서 ‘예’는 청자높임 첨사이다.

어서 청자를 높여주는데 비해 침사 ‘양’은 아주높임이나 두루낮춤에 두루 침가되어서 청자를 높여준다. 두 침사는 청자높임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지만 담화 상황에 따라서 선택되어 쓰인다고 본다. ‘마씀’이 쓰이면 단정적인 의미가 강하고, ‘양/예’가 쓰일 때는 단정, 확인, 동의 요구, 친밀감의 의미가 드러나기도 한다.

둘째, 일상적인 대화에서 ‘마씀’을 선택할 때는 좀더 공식적인 장면이며, ‘양, 예’는 덜 공식적이고 자유로운 발화 상황에서 실현되므로 세 침사는 담화 환경이나 화자의 감정 개입 정도에 따라서 선택되어 쓰이기도 한다. 세 침사는 주로 종결어미 다음에 쓰이지만 ‘마씀’은 언제나 문장종결에 위치하며, ‘양/예’는 한 문장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한다.

셋째, ‘마씀’과 ‘양/예’는 높임선어말어미와 통합할 때는 선택적으로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주로 종결어미 다음에 놓여서 침사의 기능을 잘 드러내준다. 제주방언에서 세 형태의 높임말 침사가 쓰이는 것은 의미 차이도 있지만 통사 환경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넷째, 제주방언에서 세 침사의 사용 빈도는 대개 나이, 성별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다. 실제로 성별, 연령에 따라서 세 침사의 쓰임을 확인해 본 결과 정확하게 의식적으로 구분하면서 쓰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제주방언 화자들의 발화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드러난다.³

① ‘마씀’은 성별에 관계없이 두루 사용된다. ‘양’과 ‘예’를 보면 ‘양’은 남성의 발화 빈도가 높은 편이며, ‘예’는 주로 여성들이 사용한다. 그런데 남성 화자가 연장자인 여성청자에게는 빈번하게 ‘예’를 발화하기도 한다. 남성 화자는 친밀한 연장에게는 ‘양’을 쓰고, 덜 친하고 사회적 거리감이 있을 때는 ‘예’를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남성: 마씀, 양>예 ; 여성: 마씀, 양/예**”로 볼 수 있다. 여성화자인 경우 ‘양’과 ‘예’가 친밀성 정도에서는 비슷하게 발화되지만 청자가 연장자일수록 ‘양’의 발화 빈도가 높은 편이다.

② ‘마씀’은 나이가 들수록 사용 빈도가 높은 편이다. ‘양’과 ‘예’를 비교해 보면 변별력이 거의 없지만 ‘양’은 화자보다 청자의 나이가 많을 때나, 화자와 청자의 나이가 많을 때에도 주로 발화된다. 이에 비해서 ‘예’는 조금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된다. 남성화자인 경우 주로 ‘양’을 사용하는데 젊을수록 ‘예’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양’과 ‘예’의 발화 조건을 구분하자면 개인차는 있지만 ‘예’는 ‘양’에 비해서 친밀하고, 애교적이고, 격식의 경계가 무너

³ 주로 36명(남성 11명, 여성 25명. 30대-70대)을 중심으로 하고, 20대 대학생들의 침사 사용 정도 등 대화 중에 세 침사의 사용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이 외에도 수시로 대화 중에 각 침사의 쓰임을 확인해 보았다. 20대 대학생들도 후반으로 갈수록 세 침사의 사용 빈도가 높은 편이며, 세 침사를 상황에 따라서 선택함을 알 수 있었다.

질 때 쓰인다. 그래서 제주방언 화자들은 ‘예’보다 ‘양’을 방언형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방언형을 써야 할 상황으로 판단되면 ‘양’의 선택이 높은 편이다.

3. 맺음말

제주방언은 거의 반말체에 높임말 첨사 ‘마씀, 양, 예’가 통합되어서 두루 높임의 기능을 하는데 ‘마씀, 양, 예’가 청자높임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변별력을 지니면서 자유롭게 발화됨을 논의해 보았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편리함에 중점을 둔다면 ‘반말체+청자높임 첨사’의 통사구조가 화자의 말하기에 편리하다고 본다. ‘마씀, 양, 예’는 종결어미에 바로 붙기 때문에 종결어미, 종결보조사라 보기도 하지만 담화상에서 첨사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첨사로 다루었다.

화자가 높임말 첨사를 선택할 때는 다분히 의도적인 감정이 드러나는데 청자를 높이기는 싫지만 존대해야 할 때, 무심코 반말을 내뱉다가 높여줘야 할 상황임을 인식할 때에도 가능하다. ‘마씀’은 주로 반말체 종결형에 첨가되어서 청자를 높여주는데 비해 첨사 ‘양/예’는 아주높임이나 두루낮춤에 두루 첨가되어서 청자를 높여준다. 세 첨사는 청자높임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지만 실현되는 통사 환경이 조금 다른 것은 화자가 청자에 대한 주·객관적 감정노출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본다.

첨사 ‘예’와 ‘양’은 통사 환경이나 담화의미가 동일해서 변별력이 거의 없지만 두 첨사가 발화되는 것으로 봐서 성(性)이나 연령층에 따라서 구별해서 사용된다고 본다. 제주방언에서 청자높임 첨사로는 ‘양’이 주로 쓰였는데 표준어의 영향으로 ‘예’와 혼용되면서 지금까지 두 형태가 변별력을 상실한 채 쓰인다. ‘양’은 나이가 들수록 발화 빈도가 높고, ‘예’는 젊을수록 사용 빈도가 높다. 성(性) 차이를 보자면 ‘예’는 주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지만 확률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양’과 ‘예’의 발화 장면을 보면 ‘예’는 주로 여성이 사용하는데 이는 제주방언과 표준어의 중간 단계로 인식하는 것 같다. 굳이 차이점을 구분한다면 남성은 주로 ‘마씀, 양’을 사용하고, 여성은 ‘마씀, 양, 예’를 사용한다. 또한 나이가 많이 들수록 ‘마씀, 양’을 젊을수록 ‘예’를 사용한다.

‘마씀’을 사용하면 격식을 갖추고 거리감이 있다고 판단될 때이며, ‘예’는 화자와 청자 간에 좀더 친밀한 사이일 때나 친밀한 관계로 인식할 때 쓰인다. ‘양’은 ‘예’의 발화조건과 같은데 화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사용 빈도가 높은 편이다. ‘마씀’은 화자와 청자가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높여줄 때 발화빈도가 높은 편이다.

보통 높임말 첨사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은 어휘에 의한 높임이나 청자높

임 선어말어미를 선택하는 것보다 두루낮춤에 청자높임 첨사를 첨가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으며, 반말체에 높임말 첨사만 덧붙이면 청자의 체면을 적극적으로 살려주는 언어예절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참고 문헌

문병우. 2002. 『한국어 화용표지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문순덕. 2003. 『제주방언 문법 연구』. 제주: 도서출판 세림.
 박용후. 1989. 『제주방언연구-고찰편』. 서울: 과학사.
 서정수. 1995. 『국어문법』. 서울: 뿌리깊은나무.
 성기철. 1985. 『현대 국어 대우법 연구』. 서울: 서울대박사학위논문.
 성기철. 1991. 국어 경어법의 일반적 특징. 『새국어생활』 1-3, 2-22.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성낙수. 1984/1992.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대구: 계명문화사.
 이상복. 1984. 국어의 상대존대법 연구. 『배달말』 9, 1-30. 진주: 배달학회.
 이성범 역. 1996. 『화용론』. 서울: 한신문화사.
 이익섭. 1994. 『사회언어학』. 서울: 민음사.
 이익환. 1995. 『의미론개론』(수정·증보판). 서울: 한신문화사.
 이익환·권경원 역. 1992. 『화용론』. 서울: 한신문화사.
 이정민·박성현. 1991. ‘-요’ 쓰임의 구조와 기능: 문중 ‘-요’의 큰 성분 가르기 및 디딤말 기능을 중심으로 『언어』 16-2, 361-389. 서울: 한국언어학회,
 최현배. 1971.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한국정신문화원. 1995. 『한국방언자료집 IX : 제주도편』.
 한 길. 1986. “들음이높임법에서의 반말의 위치에 관하여”. 『국어학신연구』. 547-559. 서울: 탑출판사.
 현평효 외. 1995. 『제주어사전』. 제주: 제주도.
 현평효. 1974/1985.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서울: 이우출판사.
 홍윤표 외. 2001. 남한방언검색시스템. 『한민족언어정보화』. 서울: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문순덕
 690-756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e-mail: msdeok@hanmail.net

접수일자: 2004. 9. 24
 게재결정: 2005. 1. 25